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0년 7월 2일(금)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베이붐세대의 오늘과 미래, 가족과 일에서 찾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과 일, 현실과 정책과제” 주제로  
제63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0년 7월 2일(금)

보도 날짜 : 2010년 7월 2일(금)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mailto:aeri2008@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7월 5일(월)  
오후 2시에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과 일,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3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제63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 ☐ 주제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과 일, 현실과 정책과제
- ☐ 일시 2010년 7월 5일(월) 14:00~18:00
- ☐ 장소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7월 5일(월) 오후 2시에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베이비붐세대의 가족과 일,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 63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삶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가족의 관점에서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연구위원이 “베이비붐세대의 일상 : 일, 가족, 여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민현주 연구위원이 “베이비붐세대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함인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영귀 노동부 고령자고용정책 서기관,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베이비붐세대의 일과 가족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서구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오늘 포럼을 통해 베이비붐세대의 일과 가족에 대해 조명해 보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럼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 **붙임 1. 프로그램**

#### **붙임 2. 발표자료**

## 붙임 1. 프로그램

### <프로그램 순서>

사회 :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10	인 사 말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사 회	한경혜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14:10-15:00	발 표 1	베이비붐세대의 일상 : 일, 가족, 여가를 중심으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베이비붐세대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경험 및 정책적 과제 민현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00-16:10	토 론	함인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진욱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정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영귀 노동부 고령자고용정책 서기관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16:10-16:30	종합토론 및 폐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하나로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이다.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 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